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오찬

사법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계 스스로 방향 잡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

반갑습니다. 어려운 일을 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서 와주시고 뜻을 맞춰줘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법조계가 그동안 많은 공로를 해왔습니다. 한국이 이만큼 된 게 법원, 검찰, 학교, 재야법조에서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물기에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했고, 모든 규범이 세계적 보편성 토대 위에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생활의식과 가치관도 변해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느려 사법개혁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후보 때야 힘이 있건 없건, 소관이 어디든 간에 사법개혁을 한다고 해야 표가 나오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사법개혁이 대통령 소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의 가장 좋은 방법은 법조계 스스로 방향 잡는 것이 좋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이나 국회 명령권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나서기도 어려웠습니다. 골치 아픈 일 풀려다가, 나섰다가 풀어내지 못하면 사람만 거짓말쟁이 될까 눈치만 보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두세 번 사법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야법조계, 특히 학계에서는 더더욱 큰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도우려고 짓가락, 한손 거들려니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위원회가 꾸려지는데 까지 왔습니다. 검찰도 내부적으로 직무수행에 새로운 자세를 보이고 내부조직에도 변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법원도 그렇습니다. 재야 법조계도 큰 흐름이 형성된 것 같고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법사위가 있는 데 기존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구로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대화와 설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큰 시대의 흐름과 방향에 잘 맞춰서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리라 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회 운영해왔는데 운영해본 결과 위원회가 몇 대 몇으로 갈라져서 아무 결론 없이 끝내고 마무리 못하고 정부와 사회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끊임없는 토론과 조정을 통해 통합된 결론을 만들어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도 우리나라의 선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인 만큼 좋은 결론을 만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회 운영이 무책임성과 국민 불신을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많은 것 같지만 잘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준희 위원장은 감투를 탐하거나 독단에 매달리지 않는 분이어서 손발이 잘 맞을 것입니다. 정부의 다른 어느 각료보다 중요한 자리를 맡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국가의 기틀을 손질해나가는 자리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그야말로 보수의 보루라는 사법부에서 사법개혁에 적극 응해준 데 대해 존경 말씀 드립니다.